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3년 12월호 첫발행 5.25. 동권16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1993. 1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타아활동의 길잡이 1993년 12월호 첫발행 5.25. 통권16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1993.1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께 가는 길

12월호 <제16호>

짜 임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벌써 한해가 다 갔네

정희연

만나보았습니다 / 4

여성의 전화를 찾아

황미혜

교육연구 / 9

8-12개월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

조선경

아동교육 / 13

하나가 되는 나

교육연구부

특별논단 / 30

영유아보육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김종해

활동총괄 / 44

제2회 아동교육 실기 강습회 「인형제작과 인형극 공연 배우기」 열려

제8회 아동관토론회 「공동체교육-우리가 되는 나」 열려

탁아소별곡 / 46

아이들의 서랍장을 정리하며

변임선

소식과 소식 / 48

우리들의 목소리 / 52

이오순, 김랑희, 지연

편집부에서 / 56

* 탁아소 별곡 / 3 생리통 * 우리 탁아소 별곡 / 8 구로어린이집의 '식빵피자'
* 쉬어가는 면 / 29 사진으로 보는 재롱잔치 * 만나보았습니다 / 42 '세계 성폭력
주방의 날'의 유래 *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45 재롱잔치

☆ 표지사진: 곱게 모은 작은 두 손에는 어떤 꿈이 담겨져 있을까..

사진첩을 정리하다 발견한 '92년 구로어린이집의 재롱잔치때의 모습.

일하며 생각하며

벌써 한해가 다 갔네

정희연 (부회장, 부천아이사랑)

항상 연말은 달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혹은 거리의 흥청거리는 모습으로부터 멀리 내게 다가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찾아왔고 난 지금 그 어느 해보다 연말을 맞는 마음이 착잡(?)하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과 그에 따른 초조감을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부회장이 되어 보낸 2년, 이렇다 하게 해놓은 일 없이 시간만 보낸 꼴이 아닌가 싶어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변화는 시간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거늘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하였고 성장하였는지, 그것이 내 주위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다.

올해는 대외적으로는 일정정도의 사업적 성과를 보았으나 대내적으로는 그간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들이 변화된 운동조건 속에서 일시에 표면화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했던 한 해였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물꼬를 본점, 민탁연대에 있어 우리의 그간의 활동내용들을 인정받은 점 등은 그 어느 해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신진교사들에 대한 배려, 오래 활동해왔던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조직적, 집단적인 고민과 해결점을 못찾았다는 점, 탁아소 운영 전반에 있어 여전히 가장 큰 어려움으로 되고 있는 재정문제라거나 자모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방식과 내용을 못 찾아 낸 점 등은 현재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점들로 명확히 떠오른다.

올 한해는 누구에게나 그랬겠지만 내게는 참으로 힘든 한해였다. 전반적으로 몰아닥친 사회의 변동을 겪으며, 그간 10년 넘게 고수해 왔던 내 신념, 의지들이 한꺼번에 시험받는 어려움속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되물음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 그과정에서 얻어낸 결론은 그리 복잡하고 어렵게 아니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결코 조금씩 하지 않으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는 일꾼들을 든든히 꾸려내야 한다는, 생각해 보면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벌써 1993년 한해가 다 가고 난 이제 힘들었던 한해를 그간의 고민과 함께 보내려 한다. 고민의 흔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나의 노력도 그만큼 깊었겠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으려 한다.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과 우리 삶의 터전인 탁아소를 위해.

탁아소 백과

생리통

여자는 한달에 한번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이를 옛어른들은 월수, 월신이라고도 하였으니, 대략 35년을 한결같이 매달 찾아오는 손님도 간혹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대략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애기집이 완전히 성숙 안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나이가 차서도 음양의 조화를 못이룬 경우이며, 세 번째는 애기집에 기질적인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이다. 이중 세 번째의 경우는 특별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의 생리통에 효과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양은 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면 할수록 그 기능이 더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뜸을 뜨거나 습포를 하고, 팍 제인 옷이나 시멘트 바닥을 피해야 하며 특히 미니스커트 등으로 찬 기운이 쉽게 침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여성의 생식기 기능은 '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 바다에서 나는 음

식들이 좋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마, 김, 미역 등이 다 바다에서 나는 음식이며, 특히 조개는 그 생김새로 인하여 흔히 여성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실제적으로도 치료효과가 탁월하다.

그외 검은 깨, 검은 콩이나 복숭아열매, 또 그 속에 있는 씨가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삼음고혈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삼음고는 안쪽 복사뼈 중심에서 위로 3~5센티미터 정도 되는 곳으로 뼈 바로 뒤쪽에 누르면 조금 아픈 곳이다. 우리 몸의 모든 음적인 기운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생리 전 7일부터 매일 꾸준히 지압을 하거나 담배뜸을 하루 7번씩 떠주면 좋다.

네 번째는 "쳐녀때 병은 시집가면 낫고, 시집가서도 낫지 않으면 애기 하나 낳으면 낫는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다. 결국 음양이 조화로울 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니 '조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덕목이 아닐런지!!!

만나보았습니다

여성의 전화를 찾아서

원미혜(문화홍보간사, 편집부)

이번 소식지에서는 10, 11월 합본호에서 잠깐 다루었던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를 찾았다.

여성의 전화는 본 회와 같은 여성평화의 집 건물 3층에서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문을 열자 여성인권부 남충지(사진, 26세) 간사가 웃으며 반겨주었다.

원미혜: 안녕하세요. 가끔씩은 들려왔지만 변접실에 들오와보긴 처음이네요. 저희가 지난 소식지에서 친고괴에 대해 실었었는데 이번에 성특위의 활동이나 입법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충지: 우선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남충지: 여성의 전화는 1983년 6월에 개원하여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아내구타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기혼여성 45% 이상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매 맞는 아내를 위한 상담을 시작한거지요. 변접상담은 1985년부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에는 최초로 매 맞는 아내들의 휴게실인 쉼터를 만들었는데 처음엔 방 한칸을 빌려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빌라 10여평으로, 1500여명의 많은 내담자들이 쉼터를 거쳐갑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곳곳에 이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베를린같은 곳만 해도 한 시에 쉼터가 200개 정도있는 걸 보면 우리도 이런 시설이 보다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 그럼 올해가 햇수로 10년제인데...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접했을텐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남: 여성의 전화는 크고 작은 강간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1986년 부천시 권인숙 성고문사건을 비롯해서 1988년 고아원 원장과 전도사가 원아들을 장기간 성폭행해온 영생애육원사건, 강정순씨사건, 변월수씨사건, 1989년의 파리와은행 박현옥씨사건, 1991년에 일어난 남희순씨사건(남편의 구타에 못이겨 남편을 넥타이로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중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로 많이 알



남충지(26세, 여성의 전화 간사)

려진 변월수씨사건은 1988년 9월 10일 "폭행범 허깨문 주부에 1년 구형"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이 최초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이 사건을 여론화하기로 결정하고, 9월 20일 "성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시민대토론회-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도 죄인가"를 개최했었어요. 변월수씨는 21일 1심에서 징역5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여성의 전화에서는 기자회견을 가져 '강간범을 옹호하는 안동지원 유죄판결에 항의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7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항소심준비를 했습니다. 변씨의 무죄판결을 위한 범시민가두서명을 전개했고, 항소심1차공판시(11월 30일) 대구 고법앞에서 여성의 전화회원 및

대구지역 여성단체와 여대생들 백여명이 무죄선고를 위한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변월수씨가 항소심재판(1989년 1월 20일)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원: 사건들이 정말 많았군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텐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나요?

남: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1년에 구타남편이 여성의 전화를 인신매매집단이라고 서대문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무자 3인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민간단체로서 십년 가까이 일해온 우리를 단지 구타남편의 허위신고만 믿고 서대문서에서는 인신매매집단으로 취급하는 등 거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장에게서 사과를 받았지만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의 사회적 인식확대와 함께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원: 그럼,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건가요?

남: 앞에서 말씀드린 성폭력사건의 상담과 법적투쟁, 여론화작업 등 운동의 과정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법이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신매매집단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전화에서는 4월에 성폭력 관련입법공청회를 열고 구타와 강간 중심의 운동을 벌이고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공청회를 시발로 8월에 우리를 비롯한 4개 단체가 모여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를 결성하여 정당초청간담회를 열고 세계성폭력 추방기념 제 1회 한국 성폭력추방기간 선포(11.25~12.5)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희 여성의 전화는 성폭행피해자 추모제를 가졌습니다.

황: 성폭력에 관련한 법을 굳이 특별법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뜻 생각하기엔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남: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왜 굳이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야하나면 단순히 형사처벌의 강화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여성을 심리, 의료적으로 치료하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가해자 역시 교정, 교활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지만 합니다. 절차상에 있어 사회복지적 제도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해야 하니까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죠.

황: 그렇군요. 최근에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남: 이번 법안은 기존의 형법보다는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간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온 여성계로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여러 면에서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 법관행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성폭력범죄의 법적 개념규명에 있어서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고, 둘째는 친고죄가 극히 부분적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여전히 피해자의 행동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네째 범죄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마지막으로 법집행과정,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의 책무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성폭력특별위원회'와 같은 책임적인 기관이 배제되었습니다.

황: 특별법 제정부정의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남: 성폭위가 결성될 때에 김부남, 김보은씨사건 등으로 성폭력의 이해와 요구가 더 급증하자 정부에서는 대선의 시기적 상황과 국민의 일기에 쫓겨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여성정책공약에 포함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때 졸속적 입법을 계획하기도 해서 성폭위에서 졸속제정반대 여의도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제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만...

황: 성폭위의 기간의 활동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성폭위의 활동이 궁금한데요,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남: 성폭위에서는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12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법안으로 성폭력범죄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만 성폭위를 중심으로 여러 민간여성사회단체의 연대속에 지난 3년여동

안 꾸준히 벌여온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결과 성폭력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로 제기되었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커다란 이정표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폭력관련 여성정책을 긴밀히 연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황: 이번에는 개인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동기로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게 되었나요?

남: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거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졸업후에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생시절 학보사에 있던 경험을 빌어 여성수첩을 제작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어요. 마침 그때 아는 선배가 있어서 근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어둡잡게 일을 시작한거죠. 처음에는 수첩을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인권부의 일을 틈틈히 도와주었습니다. 여성인권부의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인정을 받아서 여성인권부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문제에 무지했었는데 여성문제를 자각하고 사회문제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넓어진 것을 느낍니다.

황: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 여성의 전화는 상담을 하는 곳이면서도 사회운동을 하는 두가지가 혼합된 공간입니다. 상담이라는 건 상당히 특수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운동의 보편적인 성격과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일을 힘들게 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한달에 평균 600건 이상의 상담으로, 상담자와 본인이 별다를 바 없지만 상담을 통해 여성문제를 극복해야 하는게 버겁고 자신이 무기력해질 때가 간혹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나이와 경험의 미숙함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친구나 아는 사람들 같은 외부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힘이 들때도 있구요. 어쩌다 여성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저 직업병으로 치부해서 판단해버리거든요.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들곤 하지요. 앞으로 인간관계나 가족, 연애에 대해 새로운 인생의 조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황: 방금 연애와 결혼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남: 이젠 제가 겪었던 일인데, 얼마전 아는 선배에게 강간을 당할 뻔 한 적이 있었어요. 강간미수로 그쳤지만 상담에 임하는데 있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여성이 겪는 심리적 상태나 사회적 통념과의 거리감같은 것 말입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 딸을 외박시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여성의 전화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그런 일을 객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였기에 치유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남자선배들에겐 말할 수가 없겠더군요. 주위에서 보는 눈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달라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테니까요.

그래서 세상여자가 겪는 일은 나 역시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은 외도, 구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만나본 여성들이나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타를 하는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이 딱히 별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됩니다. 그렇다고 남성을 혐오한다거나, 모두 죄인 취급하는 건 아니구요. 다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거지요.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겁니다. 여태껏 말씀드렸던 여성의 현실을 자각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결혼따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들어요.

독신으로 산다고 해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나름의 고통을 겪게 되겠죠. 미혼인 지금도 여성으로서의 고통은 있습니다. 결혼후에는 그 형태가 달라질 뿐일겁니다. 위험부담도 있겠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황: 마지막으로 덧붙여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남: 글썽... 희망이 있는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겠죠. 3년여동안의 성폭위의 활동도 그런 희망에서 온 것일테구요.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탁아소 별미 / 구로어린이집의 '식빵피자'

재료: 식빵, 피자치즈, 당근, 피망, 양송이, 햄, 후추, 소금

조리방법: ① 식빵은 아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잘라둔다. ② 당근, 피망, 양송이는 잘 씻어서 잘게 다진다. ③ 햄도 잘게 다진다. ④ 다진 재료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볶는다. ⑤ 달구어진 오븐, 또는 후라이팬에 식빵을 놓고 그 위에 볶은 재료를 골고루 놓는다. ⑥ 마지막으로 맨위에 피자치즈를 잘게 썰어

군데군데 올려놓고 후라이팬 뚜껑을 닫는다. ⑦ 5~7분후에 꺼내면 치즈가 녹아서 맛있는 식빵피자가 된다.

식빵피자를 접시위에 놓을때 당근을 꽃모양으로 썰고 파슬리 한조각을 곁들이면 멋진 요리가 된다. 아이들은 색깔부터가 환상적이기 때문에 모두 탄성을 지르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한다. 그 후에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교육연구

8-12개월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

조선경(교육연구부)

이 글은 LaVisa Cam Wilson 의 『Infant & Toddler』에서 번역, 발췌한 것입니다.

*교재와 활동의 특징

이 연령의 영아는 움직일 수 있고, 넓어진 세계와 만난다. 잡을 수 있는 범위의 모든 물건들은 맛보고, 만지고, 움직이기에 안전해야 한다. 이 시기 영아들에게는 기기, 서기, 당기기, 물건 던지기 같은 큰 움직임의 운동조절을 발달시킬 공간이 필요하다. 조작할 교재는 영아가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만큼 작아야 한다.

*교재

기어올라가기에 알맞은 고구	소리나는 놀이감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직물	거울
잡아볼 공	크레용
쌓아올릴 물건	인형
포개놓을 물건	그림
통과 거기에 넣을 작은 물건	한조각 퍼즐

*발달 영역별 특징과 이에 따른 교수전략

1. 신체발달

. 도움없이 혼자 일어나고 앉기, 도움받아 걷기

영아가 넘어질 때 다치지 않게 물건을 치워준다.

피곤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을 앉게 한다.

잡고 설 수 있는 가구를 마련해준다.

손을 잡아주고 아이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걷게해준다.

. 엄지와 검지 사용

놀이감이나 인형 등 집어서 옮기기에 적절한 작은 물건을 준다.

손가락으로 찌러보도록 부드러운 물건을 준다. (다른 아이의 얼굴, 눈 등을 찌르지 않게 유의!)

. 박수치기, 물건을 잡고 물건끼리 부딪히기

. 펜, 크레용을 잡고 사용하기

그림 공간과 재료를 마련해주고 그려도 되는 곳을 가르쳐준다.

영아가 원하는데도 그녀게 해주고 관심과 노력을 칭찬해준다.

. 옷벗기

영아는 단추, 지퍼를 조작하기 시작하므로 큰 단추나 지퍼가 달린 옷을 준다.

. 우유병 혼자 쥐기, 컵 쥐기

특별한 두정이 달린 컵을 준비하고 손잡이를 쥐게 한다.

. 손가락으로 음식 먹기, 숟가락 사용하기

먹기전에 손과 얼굴을 씻어주고, 숟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잡도록 해준다.

음식에 먹는 숟가락을 주고 혼자 먹게한다.

. 이가 나기 시작

씹기에 안전하고, 차갑고 딱딱한 물건, 턱받이를 준비해준다.

2. 정서발달

. 행복, 기쁨, 즐거움 보이기

영아의 감정을 공유하고 미소, 긍정적 목소리로 반응한다. :크덕이기, 토덕이기

. 불안 공포 보이기

조용히 말하고 노래해 준다. 필요하면 그 상황을 제거한다.

. 짜증내기

조용히 말하고 안아주고 달래준다. 영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도와준다.

. 좋아하는 놀이감과 사람이 생기기 시작

영아가 좋아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기록한다. 이 놀이감을 자주 사용하게 함

. 먹기, 옷입기에서 독립심 보이기

영아가 스스로 입도록 허락해준다. 혼자먹는 연습하기 위한 시간을 늘린다.

. 안된다는 것에 따르는 것을 배우기 시작

영아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해야할 중요한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때때로 '안

돼'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나지 않은 목소리로 못지않고 확신하게 말한다.

책을 던지려다가 내려놓는 행동과 같이 자기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칭찬해준다.

. 지속하기와 집중하기를 조금씩 늘리기

3. 사회성발달

.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작하기

영아의 행동에 반응한다. 영아와 말하고 놀이해주어.

영아가 다른 아이들과 어른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준다.

. 부모나 교사가 보이는 곳에 있기를 원함

영아가 당신 주변을 떠나다니 수 있도록 해준다.

방의 다른 쪽에서도 영아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방을 배열한다.

.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 타인을 생각하지 못함

제한점을 말해주고 다른 활동이나 교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 교재 소유하기

영아는 아직 다른 사람의 요구를 생각할 수 없어 물건을 같이 사용하기 어려

우므로 많은 놀이감과 교재를 마련한다.

. 수줍어하고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경우

안아주고, 크덕어주고, 토덕거리 준다. 당신이 거기에 있음을 언어로 알려주

고 안심시킨다.

. 관심을 요구하는 경우

비록 교사가 바쁘더라도 긍정적인 언어적 관심을 보여준다.

4. 인지발달

. 피아제의 감각운동발달 단계의 4단계로 '협응기'이다.

. 대상 영속성의 형성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물건의 존재함을 안다.

대상 영속성이 생기면 다른 모든 실체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존재함을 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이에 따라 바구니 뒤에 인형감추기 같은 놀이를 같이 해준다.

.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어떤 결과에 대해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영아가 세상을 좀더 안정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

타인이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기 시작하므로 교사는 "나는 네 뒤에 이 공을 놓는다."처럼 자신의 행동을 말로 표현해준다.

.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기

새로운 모방을 놀이로 하게 해준다. 영아가 모방놀이를 시간과 공간을 준다.

5. 언어발달

. 용알이, 소리치기

영아가 말하는 것, 감정에 반응해준다.

. 물건에 이름붙이기

중요한 물건에 이름을 붙여준다. 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딸랑이를 가리키면서 '딸랑이'라고 한다.

'희아가 딸랑이를 가지고 있구나.' 같은 문장을 사용한다.

· 익숙한 소리에 반응하기

익숙한 음악, 일상의 소리에 반응을 준다.

'희아는 상에 숟가락 놓는 소리를 듣고 있구나.' 같이 영아의 반응을 의식하
나.

·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기

교사는 아이터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다.

· 정서를 반영하는 말하기

영아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메시지를 잘 파악한다.

'희아가 화났구나.' 처럼 정서를 표현하는 말을 해준다.

· 물체와 단어 연결하기

아종이라고 말하며 고양이 가리키기 같은 활동을 격려한다.

단어가 특정한 물건을 표상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 책 선택하기

아이에게 익숙한 물건의 그림책을 마련한다.

물건의 그림을 가리키고 물건의 이름을 말해준다.

자주 반복한다.

· 되는대로 글썽거리기

큰 종이타 크레용, 머카(매직 종유)를 주고 마음대로 그려게 한다.

* 저번 소식지에 나갔던 "영아 교육과정 구성을 위하여"의 필자를 조선경씨에서 이현
경씨로 정정합니다. 이 점을 필자 이현경씨와 회원 여러분에게 양해바랍니다.

아동교육

하나가 되는 나

교육연구부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은 덜 하게 되었지만 사
람들 사이의 끈끈한 정이나, 따사로운 관계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합리적인 계산이나 필
요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사람들과 결합한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모래알처럼 서로 간섭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예의가 되었다. 한 개인으로서 공동체속에서 자기 삶을 실현하고
성취하기 보다는 조직속의 한 부속품으로 원자화되어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소외나 고립화 현상은 사회적인 유대가 단절된 핵가족 속에서 자라나는 아
이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히기 보다는 남보다 뛰어난
아이로 자라나기 원하는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다.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 저만 아는 아
이, 공부만 잘 하면 되는 아이로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자화된 사회 속에서 지탁연 탁아소의 출발은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인
간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공동체의 모태
로 출발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출발점과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평가해보면서 앞으
로 교육공동체(육아를 통한 공동체적 결합관계 형성과정)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그 공동체가 해체되었는지 그 과정
을 살펴보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다음에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기존 유
치원에서 행해지는 사회성 교육을 넘어선 우리의 공동체 교육을 교육적 사례와 함께 생
각해보았다.

끝으로 우리가 해온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사업을 평가해보면서 어른들이(교사,
부모) 육아(아이들 교육)를 통해서(기초로 해서) 공동체적 결합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우
리의 지향점을 생각해 볼 것이다.

II.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

공동체라는 용어는 워낙 다양한 이론적 사실적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용어를 누가나 만족할 수 있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과학'에 의하면 공동체란 전자본제적 소유형태를 말한다. 전자본제적 소유형태란 노동주체(직접생산자)가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공동체에서 공동체 의식이 나온다. 즉 공동체에 알맞는 욕구가 창출되고, 이에 적절한 가족형태가 만들어지고, 의식이 펼쳐진다. 즉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생활방식, 공동체 문화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시 공동체에서는 사유재산이 없고, 공동체의 공동소유였으므로 이에 따라 인간의 욕구가 창출되고, 문제해결을 해나갔고, 가족제도도 모계중심의 가족형태가 나타난다. 이 공동체는 자본제적 소유형태 즉 직접 생산자가 생산수단과 분리되고 농업과 수공업의 결합이 파괴되면서 해체되기 시작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을 보았을 때 공동체 의식은 어떤 특정 장소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특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관계의 질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체 성원들이 철저한 소속감이 있어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원간의 공통목적을 추구한다는 일체감, 자발적 참여의식, 전인(타인을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고 가치있는 전인으로 대우함을 의미)개념에 입각한 밀착된 인간관계 등이 유지되고 있는 공동생활체를 말한다.

공동체적 삶의 내용은 더욱 친밀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간에 더욱 협동 부조하고,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감정적 응집을 강화하고, 충만감을 갖고 느끼며, 도덕적 헌신을 하며, 더욱 지속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맺으며, 각각의 성원들이 자신이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비교하고 비교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전체 성원의 이익을 위해 조절할 줄도 아는 삶을 말한다.

III. 공동체의 해체과정 및 그 결과

1. 사회 경제적 측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이전의 공동체적 소유형태는 없어지고 자본제적 소유형태가 나타났다. 즉 직접 생산자가 생산수단과 분리되고 고도의 분업화가 진행되었다. 즉 사람이 자본가와 임노동자로 분리되고, 산업의 분업구조에 의해 각 개인은 원자화 고립화되기 시작하였다. 거대한 공장에서 부속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자본주의가 성립된 후 과학 기술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공동체적 협동방식 보다는 합리성을 추구하며 사회조직 자체가 인위적으로 조직화, 관료화(위계서열화, 차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개인의 특수성은 범주화, 균등화되어 조직인간으로 소외를 경

험하는 비인간화 현상이 가속화 되었다.(소외란 인간이 조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건전성이 상실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사회는 기술적 통제를 사용하는 기술관료제사회로서 기술을 중시한다. 여기에서 기술엘리트들은 지배관계나 탄압구조를 변경시키지는 않고, 현존하는 현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실용주의를 장려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가족형태도 이에 알맞게 부권 중심의 일부일처제 핵가족제도가 성립되었다. 이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함으로써 생겨났던 공동체는 해체되고 따라서 공동체적 생활방식도 사라지고 개별화된 생활방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있어(예를 들면 작업공동체인 두레나 계) 공동체적 생활방식이 있었으나 일제의 강점으로 계곡주의적 세계질서에 강제로 편입되면서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하여 불과 20-30년 사이에 이루어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서구의 경우는 100여년 이상 걸림)로 공동체는 급속도로 와해되고 말았다.

2. 정치적 측면

현대의 권력집중현상과 원자화된 대중의 출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공동체적 소유형태(전자본제적 소유형태)에 의한 구질서(예:봉건체제)가 붕괴했는데 이에 대체할 새 질서가 부재했다. 이 때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신흥 자본가들의 자본을 보호해주는 국가, 국가주의가 출현하였다. 이 국가주의에 의하면 공동체를 붕괴하여서는 개인이 자유로워질 수 없으며, 공동체는 인간을 구속하는 질곡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상 요구되는 자유, 평등,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이며, 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국가 성립되며, 정치적 권력만이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교육적 측면

공동체가 해체되고,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 과학 혁명을 거치면서 기술중시 이데올로기가 아동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다. 즉 현대에서는 기술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세롭고도 구체적인 주변환경이 됨으로써 인간의 사상, 판단, 신념, 가치관까지 변형시켰다. 즉 사회적 관심과 인간발달을 희생시키고 대신 기술전문성과 기술문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신화체제를 형성하였다.

이 기술중시 이데올로기는 교육이론 및 실제에 까지 영향을 미쳐 학교의 주요권심사는 아동의 문제 '관리'와 행동 및 교육목표, 능력별 분리, 표준화된 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이러한 관심사에 충실하기 위해서 측정가능한 입력, 출력 변수를 이용하여 기술을 중시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자료로 단순화되었다. 교육활동의

목표, 과정, 결과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실제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는 외부인에 의해서 상세히 규정될 수 있다(교사가 말해야 할 단어 한 마디까지 표준화). 예를 들면 색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과제1: 아동에게 노란색 주사위를 보여주고 이 주사위는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질문하라. 과제2: 손가락으로 옐로우색 주사위를 지적하도록 지시하라 등등

이와같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자료의 대규모 유입으로 교육과정의 계획과 그것의 실제적인 실행은 분리된다. 이제 계획은 단순히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사용을 위한 규칙과 자료 그 자체의 생산이라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이제 교사들 간에 교육과정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필요없게 되었다. 즉 교사들이 점점 고립되어 가기 때문에 교사들 자신이 교육과정 결정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통제를 하는 것도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 통제를 받고 있는 교육과정 형태는 어떤 개인을 만들어 내는가? 이는 소유중심적 개별화된 개인을 재생산해낸다. 이는 기업 경제가 요구하는 핵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인간상이다. (소유중심적 인간이란 물질적 재화의 소유나 기술적 능력의 소유를 지향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기술적 통제를 받는 교육과정자료에는 학생들의 반응도 상세하게 미리 계획되고 명시되어진다. 이런 교육과정자료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은 가능한한 정확히 적절한 학생의 언어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정한 능력이나 기술의 숙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킨다.

교육과정을 일련의 기술과정으로 만드는 것은 일체감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의미와 교육실제를 상품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자본의 논리'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에 교육과정상의 모든 지식이 각기 분해되고 상품화 될 수 있다면 경제적 자본축적처럼 지식도 축적될 수 있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척도는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술적 과정에서 제공되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교육과정이 헤게모니의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메카니즘이다.

또한 자본제 사회가 되면서 분업화된 산업구조에 알맞는 노동력을 용이하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가족제도가 부권중심의 일부일처 핵가족제도가 되었다. 즉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하는 형태이다. 이전 대가족이나 확대가족에서는 아동양육이 비형식적으로 자연스런 생활 속에서 일어났다. 즉 조부모나, 삼촌, 고모, 이모, 동네 어른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하에서는 엄마만이 아동양육을 맡게 된다. 어린 시기에 엄마의 존재는 아이의 사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엄마의 존재가 산업사회 핵가족제도하에서는 사회와는 고립되어 가사노동과 아동양육만 맡게 되어 있다. 사회와 고립된 엄마하고만 자라왔기때문에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아는 출세지향형의 소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출세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어릴 때 부터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뛰어난 개인이 되

는 방법을 가르치려 한다. 이를 위해 남보다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영재를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어릴 때 부터 형식적인 교육(학원, 특기 교육 등등)을 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여성인력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본의 논리가 후기 산업사회에 적용되면서, 또 여권신장운동과 맞물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핵가족하에서 아동의 사회화를 맡았던 엄마를 대신할 무엇이 요청되었다. 우리 탁아소의 출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겨났던 것이다. 이제 탁아소가 아이의 사회화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체 교육은 아이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V. 공동체가치의 현대적 실현을 위한 모색(다원화된 공동체)

인간사회가 산업화, 자본주의화 되면서 인간의식과 생활방식도 이에 맞게 개별화, 원자화되어 비인간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전통적 자생적인 인간연합체였던 공동체의 기능축소와 그 가치변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공동체의 맥락(자신의 뿌리가 되는 사회)를 상실하게 될 때 동료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원자적 대중이 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통합, 전인성, 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주체의식 등의 덕목으로 표현되는 공동체 가치는 인간본성의 가장 절실한 측면이며, 개인의 존재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동체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된 교육의 상품화와 개인 출세를 위한 수단화를 막고, 사회와 건전한 관계성을 상실하고 고립화되어 소외를 경험하는 개별화된 개인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주체로 서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리탱(J. Maritain)은 문화의 다양성, 사회집단이나 결사체의 다원주의에 의해 인간의 권익, 사회적 열망 및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인간 개성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 인간 개성은 사회화(기존 사회문화(가치포함)의 내면화 과정)에서 형성되므로 인간이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성원일때 비로서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를 향유하며, 정신적 고립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다원화된 공동체 가운데 탁아활동을 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는 육아의 사회화(공동육)를 통해(기초로) 공동체적 결합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어른들이 육아를 통한 공동체적 결합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바로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사회문화 환경이 된다. 탁아소를 중심으로 성인과 아이가 함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실천해나가며 익혀 나가는 것이다.

V. 사회성 교육을 넘어서(공동체 교육의 실제)

앞에서 우리들에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공동체 의식을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공동체 교육은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수준은 미시적 수준으로 아동들이 직접 얼굴 맞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는 공동체 교육이다. 두번째 수준은 거시적 수준으로 아동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탁아소나 가정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한 확대된 수준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취업조건, 지역사회의 특성, 그 사회의 지배적인 아동양육방식 및 가치관, 탁아에 대한 공공정책 등이다. 먼저 미시적 수준에서의 공동체 교육을 살펴보자.

흔히 교사들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공동체 교육을 사회성 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공동체 교육의 내용을 떠올릴 때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동, 나누기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공동체 교육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은 공동체 교육 내용의 기초이자 일부일 뿐 공동체 교육 전부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성 교육을 넘어서 공동체 교육'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1. 사회성 교육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사회성 교육은 아동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의 아동중심 교육철학이 근간이 되는 이 이론의 기초에는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으며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역도 방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개인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그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유능한 개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로 모여 "피차 서로에게 괴로움을 주지말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우리성(Wenness)'에 익숙한 우리민족의 전통을 돌아보고 개개의 원자로 고립된 인간성의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 볼때 우리 교육의 내용은 아동 개인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중심 교육철학에서는 사회성 교육의 시발점을 영 유아기의 인지적 특성인 자기중심성(ego centrism)에서 찾는다. 즉 유아기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욕구,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지적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인지적인 발달에 따라 자기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게 되며 사회성은 이와 함께 점점 더 발달해 간다고 한다. 즉 아동 개인의 인지적 발달이 사회성 발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부모나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지금까지의 경향에서 근래에는 생후 몇개월 안된 영아조차도 또래에게 흥미를 보이며,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인과의 상호작용

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회성 교육의 내용은 문교부의 유치원 교육과정 중 사회생활 영역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영역의 교육활동은 주변의 친근한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토의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아의 자율성, 독립심, 책임감, 협동심을 기르고 상호 의존성을 체험하게 하여 원만한 인간 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고 한다.

그 내용을 간략해 살펴보면

1) 기본생활 습관

.예절바르게 생활하기 .질서를 지켜 행동하기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기

2) 개인의 생각과 행동 조절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기 일을 계획하고 완수하기

.상황에 맞게 감정과 행동 조절하기

3) 가족 이해

.가족의 구조 알기 .가족의 역할 알기 .가족의 기능 알기

4) 집단생활

.다른사람과 관계알기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기

.집단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협동하여 문제 해결하기

5) 사회 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

.주변지역에 관심가지기 .공공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기

.주변환경 보전하기 .우리나라의 상징과 전통놀이 경험하기

등이다.

이 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의 발달이나 갈등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토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기, 규칙만들기), 극놀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다른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 등이 사회성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2. 공동체 교육

그렇다면 공동체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체 교육은 사회성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성 교육이 아동 개인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동체 교육은 집단과 개인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임을 강조한다. 공동체라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스스로를 발견해 가고 집단 속에서 자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공동체 교육의 핵심은 개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공동체('우리'라는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해나가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우리성)'을 공유하게 하는 것에 있다.

공동체 교육에 있어서 배놓을 수 없는 것이 교사 공동체이다. 교사간에 민주적인 팀원, 공동체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탁아소내에서의 공동체 교육은 허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교사가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교육의 대상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교사와 교사의 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의 관계 모두가 공동체적인 결합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공동체 교육에 있어 교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전제 (교육내용)

공동체 교육은 특성상 주제나 단원 같은 형식적인 교육과정의 형태보다는 생활 속에서 교사의 철학, 신념, 언행 또는 탁아소의 분위기(일반적, 장기적 목표를 반영하는)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덕적 가치의 교육은 훈계나 설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성인들을 모델로서 배우고 직접 실천해보게 하여 "이렇게 해보니까 나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구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공동체 교육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교육내용의 항목을 뽑아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각 탁아소와 교사의 의도, 철학에 어떻게 교육실제에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아동기의 실종」과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레지오 에밀리아」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소속되고 공헌하고, 협력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레지오 에밀리아: 여기서 아동들은 3년간 함께 지내며 서로를 더 잘 알게될 뿐만 아니라 그룹의 일원으로서 강한 소속감을 갖게된다.

-소련의 집단 양육방식: 집단양육의 원리를 학교에도 도입하여 각 학년의 아동이 그보다 낮은 학년의 아동집단을 양육하는데 책임을 진다. 예컨대 조금 나이 많은 아동들은 어린 아동들을 학교나 회관으로 데려다 주고 운동장에서 같이 놀거나,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주며 때로는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공부도 도와준다.

유아원에서 시작하여 유치원을 지나면서 아이들은 여러가지 일을 통해 공동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식사시간에 음식을 나눈다거나, 청소하는 일 또는 정원가꾸기, 동물기르기, 눈 치우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 경험의 효과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자신감, 유능감, 그리고 우정과 같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공동으로 해결할 공동의 과제를 많이 준다.

*아동들 간에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이상 두가지는 뒤의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다루기로 하자.

*협동하여 작업하고 놀이하게 한다.

-비지 비 몬테소리 센터: 작업의 소유권의 강조: 교사들은 '작업'을 인간화 하는 반면, 아동은 비인간화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카일이 교실로 들어오더니 스벤에게 다가가 웃으면서 함께 놀려고 하였다. 교사는 "카일, 스벤의 작업을 방해해선 안돼."라고 말했다. 학기가 지날수록 개인주의와 소유욕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

-마틴 루터 킹 보육 센터: 함께 쓰기와 함께 놀이하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었고 아이들을 집단 내에서 협동해가며 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공동의 창의력과 융통성이 발휘되었다.

-소련의 집단 양육: 협동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협동적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가르친 결과이다. 공동소유를 유도하는 표어들이 자주 사용된다. '나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바로 나의 것이다.' 그리고 집단 놀이가 강조된다. 집단놀이 뿐만 아니라 두세명의 아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복잡한 놀이감도 있다

*아동간, 아동 교사간의 공통점, 유사성을 강조한다.

-골다 마이어 유아원 (이 유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주목된다.): 개별화, 차이의 강조: 레슬리 선생님이 지머에게 "지머야, 새 신발을 신고, 어디서 왔니?" 샌디 선생님이 샌드라의 원피스를 보고 "참 예쁘다."라고 찬탄을 하자 이번에는 샌드라가 레슬리 선생님의 새 치마에 대한 인사말을 건넸다.

-친절한 통제체계: 처벌보다는 주로 규칙 준수, 논리적인 설명이나 요청, 또는 이따금씩 협박의 형태를 띤 명령 등을 주된 통제 수단으로 쓴다. ... 사실상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할 자유는 있을지라도 그릇된 선택을 취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것이다.

-마틴루터 킹 보육센터: 공동사용과 통일성 그리고 협동은 이 학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 교사와 아동 사이에 사용되는 언어는 이러한 공동적인 경향을 강화해 주고 있었다. 교사진들은 그들의 개인화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였고, 아이에게 비교하는 말보다는 유사하다는 언어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나도 네 것과 같은 신을 가지고 있어." 또는 "오늘 무엇을 같이 하지?" 혹은 "나도 너의 형이 있는 보호소에 있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어."

즉 개인의 소유와 개인간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동체 내에 갈등이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골다 마이어 유아원: 갈등의 부인: 갈등에 대한 교육방침은 질서 구조, 조화를 향한 강력한 사회화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갈등을 부인하는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많은 경우 아이들끼리 가볍게 치고 받고, 맞는 아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

소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교사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중지시킨다. 소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놀이는 억제시킨다.

아동들은 '또래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사회화된다. 더욱이 아동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며, 현 상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필요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비지비 몬테소리 센터: 갈등의 무시: 아동의 감정이나 공격의 원인 및 소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친구의 작업을 방해하는데도 "내가 도와주려고 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도적인 반발이나 분노가 존재함을 계속 부인한다.

-마틴 루터 킹 보육 센터: 갈등을 관대하게 처리: 아이들 사이의 겉으로 드러난 갈등은 대부분 밀기, 치기, 머리 당기기, 물기, 때리기 등의 신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대부분 아이들끼리 해결하도록 지켜보았고, 싸움이 커져서 신체적인 위협이 나타나면 중재하였다. 갈등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른들이 갈등을 일상생활과 별개가 아닌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다. : 두 아이가 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뛰어박고 있었다. 그들을 끝까지 싸우도록 내버려 둔 교사는 싸움이 심각해지자 팔주머니 한 상자를 가져와서 각 아이에게 먼저주며 "자 이것을 먼저."라고 했다. 다른 아이들이 한세하였고 편이 없어졌으며 교사, 그리고 세명의 할머니까지 모두 먼저며 고함을 질러댔다.

교사들은 아동이 놀이 집단 속에 참여하도록 도우며 "그애가 네 트럭을 갖고 있을 때 네 기분이 어떤지 그에게 말해라."처럼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있어 노력을 기울이도록 격려한다.

***도와주는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한다.**

-소련의 집단 양육: 육아원에서 교사는 유아의 자기 중심적 행동에 대해 이렇게 반응한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공을 잡으려고 하였다. 교사는 이 행동을 보고 재빠르게 방울 돌러보고 아주 명랑하게 아이들을 불렀다. "(잘 놓고 있는 다른 친구를 가리키며)여러분 두 친구가 얼마나 사이좋게 노는지 보세요." 그러자 서로 다투던 두 아이는 칭찬받는 친구들을 보고는 재빨리 뛰고 있던 공을 놓고는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한다.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집단의 기준에 둔다.**

-레지오 에밀리아: 사실상 이곳에서 아동이 하는 많은 활동들은 그룹의 범위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종종 집단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다. group orientation에 대한 레지오 에밀리아의 설명은 명확하다. : 한 아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좋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없다. 아동은 집단의 범위에서 정체감을 획득한다. 따라서 아동은 소집단과 대집단 사이를 이리저리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그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겠다."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예리하게 평가하도록 격려받는다. 이런 사회교육(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명확히 말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관점에 대해 들을 기회를 자주 갖을 수 있는)은 개인차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의 가치를 알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

-마틴 루터 킹 보육 센터: 흑인 하위 문화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확대가족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흑인 유산과 전통을 인정하고 긍지를 갖도록 한다.

. 결속된 지역사회 문화로 되찾고자 한다.

. 공간과 시간 경계의 소실이 특징이다.

. 할머니들-전통의 전승자이자 과거와의 연결자

.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훈육-교사들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쉽고 편안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다.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해 주고 아동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조화를 이루었다.

***공동체의 일원인 다른 성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

-파인우드 자유학교: 출석을 부를 때 "여기 케너 있지?"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다 같이 "예"라고 대답한다. 다음에 "제이슨 있지?"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아니요."라고 입을 모아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제이슨이 아파서 나올 수 없었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공존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낭비하지 않는다.**

VI. 탁아소, 가정, 지역 사이의 역동적 결합관계

우리가 "아동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탁아소내의 장면 즉 미시적 수준으로만 국한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아동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탁아소나 가정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거시적 환경에 의해서도 상호호혜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교육이란 미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교육(기본 생활습관 형성-예의, 질서 등등/ 친사회적 행동-나누기, 돌기, 양보, 협동/ 기본적인 사회적 개념 알기)을 넘어선 교육이다. 즉 어른들이 육아를 통한 공동체적 결합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과정이 교육문화적 환경으로 체험되도록

목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탁아소내의 교사공동체나 부모-교사 간의 신뢰감, 유대감을 통한 공동체적 결합관계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으로서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체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탁아소의 활동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환경이 **교육적으로 상호 침투되어야 한다.** 즉 탁아소내의 교육활동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적 경험이나 의미를 좀 더 많이 담아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도, 또한 가정이나, 지역사회 환경을 좀 더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지탁연 소속 탁아소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그 곳에 사는 지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주민사업 및 자모자부 사업과 아이들 교육에 대한 사업이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갈래의 사업이 서로 침투되지 못하고 서로 따로 논 부분이 많이 있었고 아동교육부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긴 했지만 너무 협소하고 부분적으로 아동교육을 보고 지역사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전략으로 보았던 경향도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두 갈래의 사업은 육아를 통한 공동체적 결합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상호침투적이 되어 분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육아를 통한 공동체적 결합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교육내용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 지 심도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간 해온 자모조직사업이나 지역사업, 교육활동들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먼저 탁아소내에서 이루어졌던 교육내용을 평가해 보자

탁아소란 아이들과 성인들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익혀나가는 곳이다. 이것은 반복되는 강하나, 언어적 지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삶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아이들의 상호작용, 교사-아이 상호작용, 교사-교사 상호작용을 통해서 느낌으로, 지식으로, 태도로, 문제해결방법으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탁연 소속 탁아소는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교육적 내용에 있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익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좀 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인적, 물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단원을 할 때 혹은 견학이나 소풍을 갈 때 일회적, 단편적 활동으로 끝내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 프로젝트 접근법) 즉 견학이나, 동네를 돌기 몇 일 전 부터 교사가 아이들의 관심을 보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아이들이 대화해보고 견학후에는 아이들과 사전 계획과 비교해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확장, 심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정교화 풍부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탁아소 교사들의 여건상 이는 지나친 이상의 말 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익히는 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이 먼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아동교육이나 방법론에 대한 이해)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전개시켜 나갈 때 부모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교사-부모와의 유대가 아동교육의 내용을 축으로 보다 깊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이 가정에서 의미있었던 것을 나타내주는 물건들을 전시해주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교육적 활동의 결과를 연말의 재롱잔치 수준으로 보여주기는 평상시 하나의 교육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수시로 오픈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전개할 때 필요한 도움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탁아소 공간을 개조, 수리 할 때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 교구를 제작할 수도 있다.)

다음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활동들을 아동교육 측면에서 평가해보자.

우선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활동들의 내용에 있어 아동교육의 질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활동들은 교육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런 지역조직사업이라는 것이 아동교육과는 다른 수준으로 보고 아동교육은 탁아소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장면으로 국한시킨 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 듯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아이들이 얼굴을 부딪히는 가정이나 탁아소가 아니라 그 영역을 훨씬 초월한 환경이다. 따라서 지역활동을 할 때도 아동교육적인 방법론에 대한 철저하고 비판적인 이해와 실천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역활동이 모두 아동교육적인 내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아동교육적인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가정방문시 아동과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놀이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을 시범보여주고 그 놀이감을 대여해 주는 정기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2)엄마들의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영양학적인 식단을 나누어 보는 방법

(3)소모임을 꾸려나갈 때도 조금하게 지역사업이나 조직사업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이끌려 교사 부모 모두 힘들게 꾸려나가기 보다는 보다 오래 시간을 가지며 아동교육사업을 통한 교사와 부모 아동간의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아동 교육적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동교육적 프로그램들을 부모조직사업이나 지역활동 속에 녹여서 풀어나가려면 먼저 교사가 아동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부모들의 욕구흐름에 대한 민감한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모임을 꾸릴 때 아이들의 문제를 산발적으로 꺼내 수다 수준으로 끝내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도입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 STEP Program, P.E.T. Program) 그래서 후에 자모를 교육적 소모임의 지도자로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물리적인 여건과 교사들의 여건에서 탁아소내 활동만으로 모를지 않

나가려고 할 때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아동교육이나 방법론에 대한 이해)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전개시켜 나갈 때 부모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교사-부모와의 유대가 아동교육의 내용을 축으로 보다 깊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이 가정에서 의미있었던 것을 나타내주는 물건들을 전시해주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교육적 활동의 결과를 연말의 재롱잔치 수준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평상시 하나의 교육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수시로 오픈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전개할 때 필요한 도움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탁아소 공간을 개조, 수리 할 때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 교구를 제작할 수도 있다.)

다음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활동들을 아동교육 측면에서 평가해보자.

우선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활동들의 내용에 있어 아동교육의 질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활동들은 교육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런 지역조직사업이라는 것이 아동교육과는 다른 수준으로 보고 아동교육은 탁아소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장면으로 국한시킨 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 듯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아이들이 얼굴을 부딪히는 가정이나 탁아소가 아니라 그 영역을 훨씬 초월한 환경이다. 따라서 지역활동을 할 때도 아동교육적인 방법론에 대한 철저하고 비판적인 이해와 실천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역활동이 모두 아동교육적인 내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아동교육적인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1)가정방문시 아동과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놀이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을 시범보여주고 그 놀이감을 대여해 주는 정기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2)엄마들의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영양학적인 식단을 나누어 보는 방법

(3)소모임을 꾸려나갈 때도 조금하게 지역사업이나 조직사업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이끌려 교사 부모 모두 힘들게 꾸려나가기 보다는 보다 오래 시간을 가지며 아동교육사업을 통한 교사와 부모 아동간의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아동 교육적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동교육적 프로그램들을 부모조직사업이나 지역활동 속에 녹여서 풀어나가려면 먼저 교사가 아동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부모들의 욕구흐름에 대한 민감한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모임을 꾸릴 때 아이들의 문제를 산발적으로 꺼내 수다 수준으로 끝내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도입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 STEP Program, P.E.T. Program) 그래서 후에 자모를 교육적 소모임의 지도자로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물리적인 여건과 교사들의 여건에서 탁아소내 활동만으로 모를지 않

고 이런 부모조직 사업이나, 지역활동을 시도하고 꾸려나가려고 했던 점 하나만으로도 아동교육적으로 의미있고 평가할 만하다. 이런 지역활동들이 탁아입법부정국면을 맞으면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한 면이 아쉬웠다.

이런 지역사업이나 부모조직 사업은 공동체 교육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재 지탁연 소속 탁아소가 이를 제대로 계승 발전 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나름대로 깊이 분석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VII.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변혁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원자화된 대중을 기술적, 관료적, 문화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끊임없이 현존 질서를 재생산하려는 흐름을 거스리는 교육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힘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새로운 질서를 건설함에 있어 교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 가르침, 그리고 해방에 관한 사회적 이론적 관점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도 그들 자신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사회가 우리를 구성하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배계급의 이해와 가치를 재생산해온 그 '침전된' 역사의 일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자기성찰적이 될 필요가 있다. 즉 교사로서 우리들 자신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계급, 문화, 성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어떻게 자국을 남기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해 나갈 때 탁아소내의 장면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탁아소 장외의 부모나 지역사회의 성인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그 관계의 내용에 있어 아동교육적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교육은 변혁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위험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적 지향에 대한 열정적 신념과 참여적인 삶이 필요할 것이다.

수익사업의 회소식!!!

수익사업을 위한 떡국용 쌀떡 판매

수익사업으로 쌀떡을 판매하시면...

쌀한가마니당 재료구입, 공정비 등의 비용 180,000원

쌀떡 1kg당 판매가능액 2,500원 (한가마니에서 120kg 나눔)

수익금 300,000원에서 재료비등을 제외한 순수익금 100,000원 이상

우리 쌀을 이용하여 농촌을 살립니다.

☎ 문의처 032) 513-9683 우리네 방앗간

◇우리네 방앗간은 우리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만들어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네 방앗간은 엄마들의 맛칼스런 솜씨와 정성으로 생일, 결혼, 행사용 각종의 떡과 참기름, 들기름, 들깻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네 방앗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문한 날짜에 맞춰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방앗간은 수익금의 일부를 비영리 민간 탁아소의 아이들과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방앗간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재정사업국에서 직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단체의 지속적 연락을 원합니다. 최고의 품질과 위생적 공정, 신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에서 아동으로 전환할 때 보육의 수요자는 더욱 확대된다. 특별한 학습에 대해서나 사회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도 수요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의 취학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일반적인 욕구도 보육의 수요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육수요 조사에 입각하여 보육정책의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정책목표에는 보육의 대상욕구, 국가개입의 정도와 조직, 개입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목표의 설정이 수요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차별감없이 긍정적 차별이 가능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서비스기획자로서의 역할은 수요조사에서 확인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방법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에는 보육의 목표와 보육방법, 내용등이 포함된다. 보육목표는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기획이 필요하며, 특히 보육목표에 있어서 보호와 교육을 구별하여 조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점 취학전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에게 읽기와 쓰기를 교육하는 것을 보육목표에서 제외한 스웨덴의 경험²⁾은 유용한 준거를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시설의 확충, 운영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일제, 반일제 등 욕구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보사부에서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육아와 보육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수행의 정도가 미약하고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보육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보육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 법령에도 중앙보육위원회가 보육사업의 조사·연구와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능들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정부에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관부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보사부에 의해 보육위원이 위촉되고 보사부에 의해 위원회가 소집되고 회의안건이 제시되는 운영방식에서는 보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중앙보육위원장을 보육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방식과 안건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연구소위나 보육프로그램소위와 같이 보육위원회를 몇개의 소위로 구성하는 것도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될것이다.

2. 보육행정의 전문화

보육행정은 지역이나 담당공무원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형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의 순환보직때문에 담당자의 업무파악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담당자들이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같이 수행하므로 업

2) ibid., p.273

무를 빠른 시간에 충분히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똑같은 조항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해석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마다 별도의 독립행정체계를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단위에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보육행정을 보육정보센터로 일원화한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본적 기능은 영유아보육 법령에 규정된 정도로도 충분하다. 여기에 더해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진단과 식단의 작성 등과 건강관리와 영양관리의 업무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는 각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아동의 입소신청과 선정, 보육료 수납, 보육료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등의 업무로, 이를 보육정보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과 함께 보육시설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지도원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보육지도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3. 표준보육단가와 보육료 산정 방식의 개선

표준보육단가가 거의 보육료로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보호자의 시설이용 모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 방안은 표준보육단가가 실제 보육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표준보육단가와 보육료 징수기준을 2원화시키는 것이 있다. 참고로 일본의 보육료 산정과 보육시설 운영지원조달 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단계로 후생성에서 보육단가를 결정한다. 이때 지역, 시설장의 유무 여부, 시설의 규모, 아동의 연령(3세미만, 3세, 4세이상)에 따라 세분하여 보육단가를 산정하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급여개선을 위해 4%부터 12%까지의 가산분을 추가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일본의 보육단가도 실 보육비용, 특히 인건비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육단가는 보육시설에서 소용되는 보육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표 8〉 일본의 보육단가표 (1990년도, 특감지)

지역	보육아동수	시설장	연령	기본금	민간시설 가산금 12% 10% 8% 4%
특 감 지	45인 이하	유	3세미만	85,770円	생략
			3세	48,190円	"
			4세이상	43,210円	"
지		무	3세미만	76,630円	"
			3세	39,050円	"

		4세이상	34,070円	
46인-60인, 61인-90인, 91인-120인, 121인-150인 부분 생략				
151인이상	유	3세미만	65,430円	"
		3세	27,850円	
		4세이상	22,870円	
	무	3세미만	63,140円	"
		3세	25,560円	
		4세이상	20,580円	

둘째 단계는 후생성에서 정한 보육료 징수금 기준액 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보육료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보육료 기준액은 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계층은 주민세(市町村民税)와 소득세 납수실적에 의해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국가기준과 상이한 보육료 기준표를 규정하여 보호자부담을 경감하기도 한다. 참고로 카와사키시의 보육료 기준표는 〈표 9〉와 같다.

〈표 9〉 일본 카와사키시의 보육료 기준표

계층구분	정 의	90년 국가기준		91년 川崎市 기준	
		3세미만	3세이상	3세미만	3세이상
A(1)	생활보호세대	0	0	0	0
B(2)	주민세비과세세대	2,000	1,350	0	0

C1(3)	균등할 주민세만 납부	8,000	5,400	4,500	2,500
	8계층중 재산세 2000円이상	4,000	2,700	2,250	1,250
C2	소득할 주민세 5,000円 미만	11,100	8,500	4,900	3,000
C3(4)	5,000円 이상			5,700	4,000
----- 중 -----					
D1(5)	소득세 3,000円 미만	15,040	12,440	7,100	5,100
D2	15,000円 미만			8,100	5,900
D3	30,000円 미만			9,500	7,100
----- 중 -----					
D6(7)	소득세 9만-12만円	38,010	보육단가	20,000	15,900
D7	소득세 12만-15만円	(34,920円한도)		24,500	18,600
----- 중 -----					
D10(9)	소득세 21만-27만円	보육단가	보육단가	31,500	20,000
D11	소득세 27만-36만円	(56,880円한도)		34,000	20,000

D12(10)	소득세 36만-42만円	보육단가	보육단가	35,500	20,000
	----- 중 -----		략		
D20	소득세 96만円 이상			46,500	21,600

* 계층구분의 ()안 수자는 후생성의 계층 구분임

후생성 기준과 카와사키시 기준을 비교하면, 카와사키시의 계층구분이 보다 세분되어 있다. 후생성 기준은 10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카와사키시기준은 25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A, B계층은 동일하지만, 3, 4계층을 4단계로 구분하고, 제5계층이상을 20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후생성기준에서 제10계층으로 구분한 보육료 최고 납부계층을 9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카와사키시에서는 둘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는 둘째이하의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소득세 9만円 미만의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를, 9만円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준다. 그 결과 보호자는 보육비용의 일부만 보육료로 부담하고 있다.³⁾

마지막으로 보육단가에 의해 산정된 보육경비와 보육료정수기준표에 의해 정수한 보육료와의 차액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85년 이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8할을 부담하였으나, 86년 이후부터는 보육사업을 단체위임사무로 전환하면서 5할부담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에서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보육서비스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보육단가와 보육료산정방식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보육료 산정방식에서 배울수 있는 것은 ① 표준보육단가와 보육료를 2원화시키는 것이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며 ② 소득별 차등보육료 제도의 도입과 ③ 둘째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감면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차등보육료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차등보육료제도에 대한 반론도 있다. 소득능력에 따른 비용부담은 조세정책에서 수용되어야 하며 복지서비스분야까지 확대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동일서비스 동일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보육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 다만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보

3) 카와사키시에서의 어린이 1인당 보육비용은 11만円인데 이중 국고에 의해 부담되는 액수는 7,300円이고, 보호자가 16,700円을, 시에서 86,000円을 부담하고 있다.

육비용 산정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방법이든지 국고와 지방비에서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다.

4. 지원방식의 개선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2원화되어 있다.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중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별 지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육교사의 수가 적으며, 지원받는 시설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건비는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3명부터 5명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이 수가 보육교사 배치기준에도 미달된다. 여기에 지원액의 10%(인건비)-20%(수당)의 자부담분을 부담하게 되면 인건비 중 상당부분을 개별 시설이 마련해야 한다. 통상 human service organization에서는 운영비중 인건비의 구성비가 가장 높으며, 보육시설들이 별도의 수익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 시설별 지원방식은 지원을 받는 시설도 운영에 어려움을 받게하며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표준보육단가상의 임금기준보다 낮게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보육교사수를 기준으로 자부담분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시설별 지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한해 지원받기 때문에 보육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위임하여 실제로는 일부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별 지원은 대상아동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지원액에 문제가 있다. 선정기준을 지역, 소득방식, 가구의 크기, 가구원의 특성, 주거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분화하여야 하며, 이들 기준에 의한 조사지침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될 때 일관성있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보육정보센터를 강화하여 지원신청과 선정을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지원액은 정부지원단가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보다 낮은 점이 문제이다. 여기에 지원액의 20%의 시설자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정부지원을 받지않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보육료지원대상 아동을 보육할 경우 적자가 심화되어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할 저소득층아동이 기피될 수도 있다. 표준보육단가와 2원화되어 있는 정부지원단가를 표준보육단가로 일치시켜야 한다.

2원화된 현행 기준은 시설운영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원기준을 일원화하여 모든 시설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보육단가에 의해 산정한 보육비용과 보육료징수기준에 의해 보호자가 부담한 보육료와의 차액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호자책임으로 되어있는 보육비용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참고로 일본 요코하마시의 보육비용 구성을 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그림 1> 보육소의 재원 구성(1990년 일본 요코하마시) (단위 千円)

보 조 금 二 七 五 . 八 六 三	조치비(보육단가에 의해 산정, 100%)		10,088,224		
	국고부담금 (17.5%)	시비부담금 (17.5%)	보호자부담금 (65%)		
	1,772,266	1,772,266	6,543,692		
	국고부담금 (10.4%)	시비부담금 (10.4%)	시비부담 (13.4%)	보호자부담 (25.0%)	법정의 시비부담분 (39.2%)
		①	② 35%	65%	③ 6,684,108
운영비(실제 보육비용, 100%) ④					17,048,195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text{＊ 운영비에서 시비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 \frac{\text{①} + \text{②} + \text{③}}{\text{④}} = 63.0\%$$

$$\text{④}$$

$$\text{＊ 국비부담율} = (\text{보조금} + \text{국고부담금}) / \text{총운영비} = 12.0\%$$

$$\text{＊ 총운영비중 보호자 부담율} = 25\%$$

이 구성표를 보면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조치비를 기준으로 해도 보호자가 보육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치비중 65%를 보육료징수 기준액표에 의해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를 국고와 시비에서 분담하고 있다. (국고부담율이 80%에서 86년부터 50%로 감소함) 둘째는 보육료징수 기준액표에 의한 보호자부담분도 보호자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의해 시비지출분(②의 부분)을 통해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비율이 작게는 보호자부담분의 20%(1986년 후쿠오카)에서 높게는 50%(1986년 가와사키)까지 된다. 마지막으로 보육단가(조치비)가 실제 보육비용(운영비)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이 부분을 법정의 시비 부담분(③의 부분)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낮은 때문으로 법정의부담분은 대부분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다. 그 결과 보육비용중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보육소 운영비중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한채 보육사업을 단체위임사무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담이 보호

자에게 전가되어 보육료가 인상되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평등과 비싼 보육료가 보호자의 보육시설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단가를 산정할 때 보육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보호자의 참여 강화

보호자는 육아의 책임자임에도 보육료를 부담하는 이외에는 보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육서비스의 이용자에 머무르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좋은 보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가정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보육시설은 단순히 육아를 위탁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의해서만 운영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개방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개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의 이용을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과 보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도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업지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모회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회에 대해서는 육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설의 재정에 대한 내용까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보육이 내 아이의 육아를 단순히 타인에서 위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모든 어린이의 육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6. 기타

지금까지 보육사업수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에 더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몇가지 더 제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자 증가

국고와 matching fund에 의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참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보육사업등의 분야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기여가 기대된다. 다만 지방재정의 기여 증대가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일정 비율이상을 반드시 국고에서 부담하고 여기에 더해 지방비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호자의 보육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민간보육시설 설치기준의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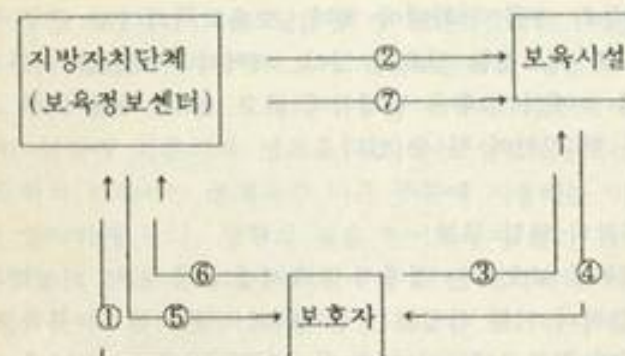
보육수요의 전부를 국공립보육시설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민간보육시설의 참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사부에서는 여러가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 물론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어린이의 건강한 보육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육수요가 높은 도시지역의 저소득층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은 이러한 설치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준 적용의 융통성이 요청된다. 현시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문제이다. 보육사업지침서에는 92년 5월 30일자로 건물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조치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내용이 정확하게 홍보되지 않아 시설의 악 절반정도가 이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민간보육시설의 약 80%가 전·월세로 건물주의 동의와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때문에 용도변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4) 이는 민간시설의 확충 유도라는 정부 목표와도 상치된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보육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개별 시설에 입소신청을 하면 각 보육시설에서는 입소신청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이중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설이용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물론 현재는 보육아동이 정원에 미달되는 시설이 많고 보육료의 지원이 일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형평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경우 형평성이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소신청과 아동선정, 보육료 수납 등의 업무를 보육정보센터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보육시설 이용 절차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조사결과 참조, 조사결과는 93년 9월 24일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에 발표되었음.

- ① 보육시설 입소 신청
- ② 보육시설 입소 의뢰
- ③ 아동 입소
- ④ 보육서비스 제공
- ⑤ 보육료 납부 고지
- ⑥ 보육료 납부
- ⑦ 보육비용(조치비) 지급

(4) 보육시설의 행정부담 완화

보육시설은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관계된 직접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업무이외에도 여러가지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업무는 14여종, 40여가지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고 작성하며, 주기적으로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업무들이다. 서류의 상당부분은 한번 구비하면 계속 사용가능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매번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전담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한 개별 보육시설에서 이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행정서식과 비치서류를 아동의 보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서류는 간소화하여 시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영양관리와 건강관리 등의 업무도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등의 조직으로 이관하여 보육시설에서는 직접보육과 부모에 대한 육아지도, 지역사회와의 교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5)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교사 1인당 15명(영아의 경우는 7명)의 어린이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돌본다는 것은 매우 과중한 업무부담이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부담은 월평균 40여만원이라는 저열한 임금수준과 함께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종사자 배치기준상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의 수를 완화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도 8시간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주부들을 자원봉사자나 시간제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의 보육을 담당하게 하고 보육교사에 의한 보육과 병행하는 것이 근무조건 개선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6) 유치원, 사설학원과의 역할 구분

어린이에 대한 가정외부의 보호라는 점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사설학원들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 목적들이 다르며 이에 따라 시설의 설치기준과 프로그램들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치원과 사설학원에서의 동일한 운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 취학아동에 대한 하교후의 보육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사설학원에서 반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통합적인 위상을 부여할 것인지 명

확하게 구분할 것인지 여부등을 명료화하여야 한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육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의 조달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된다. 보육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총재정을 확대하는 방안과 예산지출구조를 변화시켜 보육부문의 구성비를 증가시키는 방안의 두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정부 총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상향조정이나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적정 담세능력을 초과할 경우 조세저항으로 재원확대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결코 낮지 않으며, 특히 근로소득세 납부계층, 즉 임금노동자의 조세부담율이 낮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조세수입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불로·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면 어느 정도는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보육사업과 같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원의 할당은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다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성장이데올로기와 융합됨으로써 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부문의 예산부족은 재원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부문에 재원을 할당할 의지의 부족이 문제인 것이다.

세출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육사업에 대한 재원의 할당은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이며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예방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해결을 위해 집행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의 지원은 육아비용을 사회화함으로써 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보육의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보호자에게 전담시킨다면 제한된 임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노동자는 소득이 늘지 않는 한 보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생계비중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비중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생활의 질이 열악하게 된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제약이나 어린이 양육의 방치를 야기한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생활의 질 모두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높은 소득을 추구하게 된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원은 임금이 유일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의 추구는 고임금으로 전환되어 결국은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 성장을 위해서도 성장정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보육제도는 공적인 보육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재원의 부족때문이 아니라 육아와 보육사업에 대한 고정된 인식때문이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10월중에 작성된 논문이기에 11월에 발표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하면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3세미만: 7인당 1인	2세미만: 5인당 1인
3세이상: 15인당 1인	2세 : 7인당 1인
	3세이상: 20인당 1인

알아봅시다 /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의 유래

세계 성폭력의 날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세자매 파트리아, 미네르바, 마리아 테레사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기념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그들이 태어났을때 도미니카공화국은 독재자 트루히요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중 미네르바는 후에 그녀의 남편이 된 타바레즈변호사와 함께 반독재그룹 "6월 14일"을 1959년에 조직하였다. 미네르바는 민족주의자로서 "6월 14일 운동"의 모든 이념이 그녀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1960년 11월 25일 세자매는 같은 감옥에 있는 남편들을 면회하러 가다가 중도에서 정지당하고 끌려내려져 곤봉으로 맞아 피살되었고 그들의 시체는 바다에 버려졌다. 강간은 하지말라는 특별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은 당하지 않았다

고 한다.

이들 세자매의 죽음을 기념하여, 1981년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 25일을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여 지켜왔다. 그러다가 1991년 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 23명이 모여 11월 25일부터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성폭력 추방기간"으로 하여 전세계에 확산시키기로 하고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1월 25일 세계 성폭력 추방의 날을 시발로 하여, 12월 4일은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여대생이 아무 이유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남자에 의해 집단살해된 날이며, 또한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1992), 재정관련 통계집
보건사회부(1993), 보육사업지침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3),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1991),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공동육아제도의 전망, 한울
한국여성노동협회의 편(1992), 일하며 키우며, 백산서당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90),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
中西啓之(1990), 福祉と医療の経済学, 大月書店
_____(1991), これからの保育園と保育行政のはなし, 全国保育園連絡会
高山憲之(1982), 保育費用負担-應能負担原則再検討, 一橋大學経済研究所, 「經濟研究」, 제33권 제3호
右田己久恵(1989), "保育問題", 浦邊 史ほか(編)「社会福祉要論」, ミネルウァ書房
全国保育園連絡会・保育研究所 編(1992), 保育白書
Edward C. Melhuish and Peter Moss eds., Day Care for Young Children - International perspectives
Marry Rugg(1984), The State and Working Women - A Comparative Study of Britain and Sweden, Princeton Univ. Press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4년 동계수련회

어름의 끈끈했던 만남을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볼 수 있는 동계수련회는

1994년 1월 3일 - 5일 (월-수)

서울 숭실대학교 내 사회봉사관

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3만원이고요,

월기도구, 간단한 세면도구, 탁아소 홍보책자 등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활동총괄

제2회 아동교육 실기 강습회 '인형제작과 인형극 공연 배우기' 열려

서울 경인지역 아동분과 주최로 '제2회 아동교육실기 강습회'가 11월 16일, 20일 2차에 걸쳐 본회 교사 29명의 참가속에서 여성평화의 집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강습회는 동부지역 개나리동산 윤경신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다.

1차 교육은 인형제작과 대본연습이 진행되었고 2차 교육은 직접 인형을 가지고 공연하는 법을 배웠다. 대본은 '살금살금 쿵팡쿵팡'이라는 그림동화를 기초로 만들어졌고, 인형은 박을 이용한 손인형을 만들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고 복잡한 제작과정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서 교육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다. 또한 구연과 인형조종등을 직접해봄으로써 공연에 대한 방법을 익히고 탁아소에서 인형극 공연을 하는데 감각을 익히는 자리였다.

이번 강습회는 본 회내의 교사중 전문영역에 대한 능력이 있는 교사를 발굴하여 다른 교사들에게 교육함으로 앞으로는 자체내의 전문인력을 키우고 전체화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교사들의 직접 작업을 함으로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하고 관성화될 수 있는 교육 준비와 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폐품과 소도구를 이용한 인형제작을 하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제기되었다. 이번 강습회는 재롱잔치준비 지원 사업이었기에 공연용 인형제작이었으나, 앞으로 쉽게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형을 제작하는 기회를 지역에서든 중앙에서든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8회 아동간토론회 '공동체 교육-우리가 되는 나' 열려

1993년 12월 8일 아동간 토론회가 교육연구부 주최로 여성평화의 집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 '탁아소 규율 규칙에 관하여'를 시작으로 교사들의 아동간과 교육간에 대한 문제제기와 열띤 토론을 이끌어낸 아동간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로 1차 마감을 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본회 탁아소에서 가장 크게 잡는 교육의 목표를 주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었다. 남명자, 조선경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 마지막으로 서현경의 레췌오 에밀리아의 교육과정이라는 공동체 교육의 외국 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공동체 교육을 하기위한 바탕으로 교사공동체, 지역사업 부모사업에 대한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이국 사례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과 달리 교사들의 저조한 참여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이의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에서 열띤 토론과 함께 교육에 적용, 그를 통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과제로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재충간치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모든 유아교육정보지에는 재롱잔치에 관한 정보가 가득하다. 재롱잔치 준비용 비디오 테이프, 재롱잔치 물품대여, 교사연수등 현란한 모습으로 교사의 시선을 끈다. 그러나 이런 재롱잔치는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기보다는 어른의 즐거움 때문에 아이들이 재롱을 피워야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쉽다. 재롱잔치가 무엇일까? 1년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외젓해졌는지 부모, 교사들앞에서 과시(?)를 하는 잔치이다. 부모, 교사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놓쳐버린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대견해하는 날이다. 이런 잔치에 아이들은 쉽게 어른들의 즐거움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몫이 너무나 크

다. 짜여진 것을 연습해야 하고 그 내용 또한 아이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주제가 되기 쉽다.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재롱잔치가 기보다는 부모, 교사, 아이들이 함께 하는 송년잔치로 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예를 들면 동극, 동요부르기 등 아이들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과시해보고, 교사는 부모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맛있는 먹을 것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참 잔치가 아닐까?

중요한 것은 교사들은 이 잔치를 진지하게 부모와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짜보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멋진 잔치가 될것이다.

탁아소별곡

아이들의 서랍장을 정리하며

변임선(동근나라어린이방)

그릇이 여러 음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서랍이라는 것은 여러 물건을 담아 보관하는 일에 쓰인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조형물들은 무엇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까?

아이들이 다 간후 여기저기에 잊어버리고 놓고간 그림이나 색종이 접었던 것을 서랍에 넣다보면 자연히 서랍속을 보게된다. 그곳은 그야말로 여러가지로 가득찬 곳이다. 어쩔 그렇게 넓지도 않은 서랍속에 많이 넣어져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여러 모양의 조각지, 여러번 접었다 폈다 해서 너덜해진 색종이, 몇주는 됐음직한 그림들, 리본체조하다 남은 나무젓가락, 그밖에도 만들고 찢고 붙이고 흔들던 조형물들이 고스란히 또는 망가진채 서랍안에 가득 있는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의 서랍은 얼마안가서 가득 차버려서 정리를 해야한다. 가끔씩 얼마나 선생님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엄마가 정리를 해주다 대뜸 "이거 버려라. 이게 다 뭐니?" 그러면 아이는 "이거 버리면 안돼." 하고 정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간혹 예외도 있지만 대개의 만들어진 조형물들은 엄마에게 충분히 자랑되어지기도 전에 보관할 장소가 넉넉치 않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곤 한다.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할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저 버려도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그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알아내지 못한 상태로 구석에 놓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문자나 언어에 의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형활동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어진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그런 조형물들을 너무 쉽게 이해하지 못한채 대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그러면서도 씨도 뿌리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길 바라는 바보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고르게 표현할 줄 아는 조화롭고 건강한 인간이 되길 바라고 있는건 아닌지... 아이들의 서랍장을 정리하며 생각해본다.

쌀,기초농산물 개방반대는 제 2의 민족독립운동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이 합심하면, 개방 막을 수 있습니다.

설사 UOI이 타결되도 각국의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완전 타결이 됩니다(94년 4월까지).
최종 순간까지 저지여부는 국민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 정부의 사대매국족 행위규탄, 미국반대 범국민운동이 확산되면 미국도 굴복하고 정부도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움직입니다.

◀ 국민행동지침 ▶

1.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2. 국민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요구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3. 미대사관, 청와대, 정부기관, 언론사에 항의전화와 전보를 보냅니다.
4. 국민을 속이고 수입개방에 앞장서는 정치인 고발, 소환운동을 전개합니다.
5. "쌀개방 절대반대" 리본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6. 전국적으로 수입저지 국민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지역별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합니다.
7. 노동자는 사업장별로 항의집회를 조직하고 사업장에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표어를 모집, 부착합니다.
8. 수입농산물을 절대로 사먹지 않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농민과 직거래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종교인들은 사찰과 교회당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농민을 위한 기도회와 법회를 엽니다.
9. 교사와 학생, 지식인들은 「교육선전단」을 꾸려 활동합니다.

미국쌀로 키운 자식 예비미 몰라본다.
농민죽고 나라죽는 쌀개방이 국제화냐?

※우리 농산물 살리기 국민모금운동에 동참합니다.

(국민은행:313-21-0752-155 최종진)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여성연구회 심포지움에 참석

지난 11월 19일(금) 2시 학술진흥재단 소강당에서 「한국여성연구회 제 2회 심포지움」이 「모성보호정책의 기업내 제도화 과정에 대한 실태분석(정혜선)」의 논문발표가 있었고, 특히 본회 정책연구부소속의 장미경씨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확대방안」이라는 논문을 외국사례와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본회 최현숙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심포지움자료집은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연합회 집행위원회 M.T 가져

본회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은 지난 11월 26일(금)~27일(토) 양일동안 강촌에서 M.T를 가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 그간의 활동속에 나타난 서로의 인간관계를 되새겨보면서 아울러 이 후 연합회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 것을 새롭게 결의하였다.

M.T에는 본회 회장단, 사무국원들이 참석하였다.

- 수련회, 총회 준비위 꾸려

94년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는 팀은 동부, 인천, 북부, 안산, 봉천지역의 대표와 남미영부회장, 이경희사무국장, 오윤정교육간사로 구성되었다.

이번 수련회의 목표는 이제까지의 우리 활동을 점검, 파악하고 내부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모두 함께 고민하여 내년 지역을 강화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더불어 교사들간의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활기찬 94년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제 9회 정기총회준비위는 최현숙회장과 정희연부회장, 구로, 부천, 성남, 수원 지역의 지역대표, 황미혜문화홍보간사가 함께하고 있다.

각 지역이 재물잔치와 송년회, 기타 문제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찬 수련회와 총회를 위해 노력하는 수련회준비위, 총회준비위에 위로와 격려를!!

모임과
모임

지역대표자회의

-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11월 11일 중부, 봉천 불참)

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의 지자제에 대한 보고와 어머니 큰잔치 평가서 검토를 했음. 중요하게 논의된 안건은 93년 지탁연 사업의 간략한 평가와 이를 기반으

로한 94년 사업방향과 구조에 대한 논의였다.

94년 사업 방향에 대해 지역에 배포되었던 발제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오히려 각 지역위원회 또는 탁아소의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각 탁아소에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하는 것은 보육정책의 변화와 보육시설의 확대, 사회정세의 변화등에 따른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적극적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되었다.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와 각 탁아소의 활동평가를 정확하게하고 다음지대의 평가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련회 준비위원회와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지방 지역대표자회의
(11월 24일 전주 불참)

아동교육실기 강습회와 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의 자방자치제 교육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역위원회 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총회나 평가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많아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전반적인 활동 평가에서 나타난 것은 지방이라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민탁연대나 지원확보의 기쁨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탁아소의 문제점들은 서울, 경인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되었다.

93년 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94년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긍정적으로 논의되었음.

다음 지대의에서는 수련회와 총회준비에 대한 총점검과 지대의 평가를 하기로 했다.

- 서울경인 지역대표자회의
(11월 25일 전원 참석)

보육학회 심포 및 창립대회, 어린이 성폭력 방지 비디오 시사회 참석, 아동교육실기 강습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중심 안건으로 지역위원회 평가 및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각 지역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었다.

각 지역의 공동 과제가 몇가지로 압축되었는데 1. 교사의 문제 (교사교제, 수급, 역할분담, 처우개선등) 2. 자모회운영 (자모회의 운영, 재정문제와의 관련성) 3. 탁아소 운영 (교사 공동운영체계의 효율성, 입소대상 등) 4. 재정문제 (보육료 인상, 운영이사 추대)였다.

이러한 문제들중 지역의 논의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할것과 고수해야할 것을 합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기 위해서 자가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택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전교사가 모이는 수련회때 갖기로 하였다.

총회와 수련회 준비위 논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지대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가 있었다.

아동교육분과

-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는 5개 지역에서 재통잔치의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이 직접 인형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방법으로 인형제직과 공연하는 법에 대한 강습회를 전체 차원으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수련회때 있을 아동교육의 내용을 음률활동으로 할 것으로 수련회 준비위원회에 의견을 냈다.

그리고 12월 8일에 있는 아동간 토론회에 대해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해 활동평가를 하였다. 평가는 중앙활동과 지역활동간의 조직적 결합과 사업내용의 구분이 동시에 제기되었으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그를 통한 아동교육의 내용을 심화시켜야 하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지역에서도 아동교육에 대해 심도깊게 연구하고 그 성과로 아동교육의 내용을 생산해 내는 교사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각각 지역실정에 맞게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음 회의는 지역분과의 계획과 1년 평가서 총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부족했던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저녁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다.

- 지방아동분과

지방아동분과는 아동간토론회 <공동체 교육>에 관한 초안자료 검토및 논의와 1년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동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총집합하였고 다음 회의에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로 했다. 1년 사업평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방아동분과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고, 내년 사업방향에 기초를 논의하였다.

다음 모임에서는 지역분과활동의 평가를 완료하고 구체적으로 내년사업을 계획하기로 했다.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는 놀이감에 대한 책의 교정을 마쳤다. 책은 연말 인쇄업체 사정상 내년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9월부터 준비한 공동체교육 <우리가 되는 나>토론회를 무사히 준비 개최하였다.

다음 회의는 1년 평가및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에서는 1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주체선임과 교육일정및 내용을 논의하였다. 활동평가에서는 대표자의 자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후 대표자회의에서 각 자원활동가팀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1994년 1월 28~29일 양일간 우이동에서 차기주체 교육을 겸한 합숙을 할 예정이다.

사람들

* 알려드립니다!

- 조용란씨(동부 오손도손애기방)가 지난 11월 27일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힘입지 않은 밝은 모습으로 계속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 장기휴가에 들어갔던 최홍국씨(인천 세쌍둥이탁아소)가 11월 26일 독일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독일의 보육시설을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 축하드립니다!

- 이은애씨(안산 진달래동산)가 12월 8일 득녀하셨습니다.

- 본회 교육간사로 수고하시는 오운정씨가 12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잠실롯데에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 본회 지도위원이신 김경태씨가 지난 12월 13일에 자녀 백일을 맞으셨습니다.

* 휴가, 휴직을 맞으셨습니다!

- 지역대표로 활동하시던 김명신씨(구로 본본이어린이집)가 94년 1월부터 산전휴가에 들어가십니다.

- 본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신 남미영씨(구로 새터어린이방)가 안식년휴가를 94년 1월에서 들어가십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농촌 탁아소에도 이런 어려움이...

이오순(전북 돈지어린이집교사)

우리 농촌지역은 누구나 짐작은 하겠지만 주로 농사와 약간의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비교적 넉넉치 못한 살림들이다.

우리 돈지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밭으로, 논으로, 때론 시장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신다. 이런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알면서도 장소가 마땅찮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탁아일을 하겠다는 교사가 구하기 힘들고, 주위의 이해부족 등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까지 여간 힘들게 아니었다.

일명 "귀신집"이 여러 농민회원들의 협조와 지역주민 약간명의 도움, 그리고 우리 엄영애선생님(원장) 수고로 말끔히 단장된 저택(?)으로 되었다. 일단 동네 한가운데 있던 귀신집이 없어지고, 아이들을 맡아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니 엄마들은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가능한 아이 14명으로 시작한 우리집은 그런대로 어려움을 이기며 2명의 교사가 일을 했고 2학기가 되면서 새로운 아이가 4명이 늘었다. 어렵게 아이들을 맡아오지만 주위에서 때로는 놀이방처럼 놀기만 하는 곳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감이 좋지 않아 섭섭하기도 했다. 물론 잘 놀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자란다는 걸 알지만 내면에 깔린 내용이 비난조일때

말이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거금 이만오천원을 내는데 별로 실력(?)이 높지 않는다고 불편을 하는 모양이다. 지역주민들 우리 농탁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느끼도록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는 아직 미숙한게 너무 많다. 교재, 교구부터 시작해서 올겐 하나없이 아이들 노래를 가르쳐왔다. 선생님들 역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배우며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나 같은 경우 밤 11시까지 양성교육과정때문에 육체적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우리집에 내살난 윤성이란 아이가 있었다. 윤성이는 엄마와 아빠가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하고, 시골할머니덕에 동생과 함께 보내진 아이이다. 처음에 왔는데 언어도 또래에 비해 상당히 늦고 말도 별로 없는데다 눈빛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그런 윤성이는 낮잠시간만 되면 다른 방에 가서 혼자 놀다가 소리없이 울고 있기도 해서 안스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윤성이가 하고싶은 말은 얼마나 많으랴. 몇개월이 지나자 가끔씩 화를 내면 성난 코뿔소마냥 사납던 윤성이의 입이 열리고 큰소리로 노래도 부르며 춤도 추었다. 처음에 선생님을 엄마라고 하더니 역시 곧잘 선생님이라 했다. 낮잠도 잘잔다. 저보다 두살위인 강림이누나옆에서만 자기를 좋아했다. 앞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아동이든 우리의 몫을 이렇듯 꾸준히 해내야 할 것이다.

돈지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탁아소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신했 교사가 거의 구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김광희(배출여기동지)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나의 꿈들이 태고는 갈길을 잃어 이
칙칙한 어둠을 헤뎠때

뒤돌아 서있는 사람아 나는 너의 아무런 의미도 아닌것

그땐 난 너무도 외로웠네

길은 멀은데 가야할 길은 더 멀은데
비틀거리는 내모습에

비웃음소리 날 찌르고 어이가나 길은
멀은데...

안치환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문득 내가 걸어온 나의 길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펼쳐졌다.

늘 보이지 않던 나만의 길.

돌이켜보면 그리 현명한 판단도, 그렇다고 어리석은 판단도 아닌듯이 결정한 내 삶이었지만 늘 선택과 맞물리는 또 하나의 과감한 포기가 필요했기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던듯 싶었던 나의 길.

나이들어 어렵게 학교를 다니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해송을 알게되었고 졸업과 동시 난 동지교사를 자청하여 올라왔다.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인해 만팔로서 보다 나은 조건의 유치원에서 근무를

첫째가 두말 할것없이 재력이다. 아이들 보육료로는 도저히 운영조차 어려운 형편이라서 어떤 대안이 없이는 현재 교사들도 힘들고, 보충할 교사도 선뜻 구하기 힘든 형편이다. 그렇다고 도시지역처럼 자원봉사자라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바램이지만 아직 부족한 수는 없다.

교사들의 흥을 돋구어 아이들에게 영양가 풍부한 질이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없을까? 시설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걱정이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모이기에 거리가 멀어서 차량운행문제도 있다. 농촌지역, 천연장난감이 많은 이곳을 최대한 활용해도 농촌지역 탁아시설에는 필요한게 너무 많다.

우리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참작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의 지원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한해를 돌이켜보니 이런 여러가지 생각, 기억들이 떠오른다. 돈지의 살림도 이제 해를 바꾸어 계속되어질 것이고 나의 부족함도 그에 따라 채워질 것이다.

내년에는 첫 발걸음을 땀 올해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리라 다짐해본다.

해야했지만 나는 짐 보따리를 싸들고 산 동네에서 자취를 하며 교사로 10개월째 근무를 해오고 있다.

무엇이 나로하여금 해송을 선택하도록 하였는가.

솔직히 해송은 내게 있어 하나의 도피처였다. 내가 처해있던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고 싶었고 때로는 거부하고도 싶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오던 모든 삶의 방식을 탈피해 전혀 낯선 곳에 홀로 떨어져 그야말로 새로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해송은 내게 또다른 도전의 장이었고 기대이상의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강제력을 필요로 했다. 장시간에 걸친 보육으로 인해 밤샘을 떠 먹듯하며 작업을 해야했고 올바른 교사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보다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낮잠시간에 아이를 끌어안고 재우다가 소리없이 흐느껴야했던 날들.

하지만 돌아켜보면 이것들이 결코 후회스럽지는 않다.

그를 통해 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만족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로 인한 좌절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그러한 사회가 될 때까지는 내가 가고 있는 이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은 비단 특정인이 아닌 우리모두가 내야할 욕심이다.

부모, 형제, 친구들 그외 내게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 친구가, 봉사할 생각으로 있지 않다면 그곳에서 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내가 만일 봉사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있다면

지금 당장 미련없이 돌아서 가야하리라. 오히려 내게 여유가 있어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내 생활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이곳 빈민지역 주민들(?)에게는 봉사내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다는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같이 살아갈 동지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노력해보고 싶다.

지택연에 소속되어 있는 탁아소 교사들이여.

당신들은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아이들 앞에 서 있는가.

지금 가고 있는 자신의 길을 한번쯤은 돌아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가 고독한 마라토너들이다. 많은 환호와 박수 갈채속에 선두로 들어선 주자이기 보다는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완주했다는 사실에 홀로라도 미소지을 수 있는 마지막 주자의 기쁨이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은 아닐지.

내일이면 차가운 공기를 두 볼에 가득안고 제일 먼저 등지문을 들어서서 다은이를 두팔로 꼬옥 안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겠다.

나의 길을 만들어 주고 이끌어주는 작고 어린 손들에게 감사하면서.....

일일찾집을 끝내면서

지연(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

오늘은 용기종기어린이집의 일일찾집을 여는 날.

전날, 늦은 시간까지의 과잉의 노동과 두세시간의 수면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더 자고 싶은 욕구를 뿌리치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해마다의 경험속에 쌓인 연륜은 사전준비를 점검할 수 있었고 전날에 모든 것을 완료시킬 수 있어서 당일날 아침을 여유있게 맞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우리의 이미지를 위해 평상시 안하던 화장에 머리손질까지 또한 옷차림에도 신경을 잔뜩 쓰고 집을 나섰다.

어린이집에 들어선 순간, 새벽에는 지쳐서 느끼지 못했던 집의 완벽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해주었다. 또한 매일매일 일에 지친 엄마들도 오늘만은 웃으면서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은 웬지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전날까지 걱정되었던 앞집(성당)의 일일바자회겸 분식판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고 도와주셨다. 중간중간의 경품추천시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흥분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준비한 모든 음식이 다 팔리고 끝까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늘 함께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전날부터 당일까지 열심히 일해준 엄마들의 수고로 우리의 행사는 예상외의 많은 이익과 서로

친밀감을 주고 자신감도 주게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어린이집에서 했던 것이 아주 큰 홍보의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어린이집이 지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편집부에서

* 글마당과 베풀시장은 편집부사정으로 인하여 실지 못했습니다.

* '함께 가는 길'을 함께 만들, 의욕에 찬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개탁아소에서 소식지를 담당하거나 소식지에 관심이 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함께 가는 길'이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지역에 소재한 탁아소들 또는 자료회원들께서는 받으신 후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호는 편집부 교체로 인하여 제작과 배포가 늦어졌음을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의 애정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신년호에는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꾸준한 관심과 충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자료회원 신청은 이렇게..

♡ 본회의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 및 그외 탁아활동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을 자료회원으로 모집합니다.

지금 곧 02)275-8505~6 으로 전화를 주시면 「함께 가는 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 납부는 이렇게..

♡ 국민은행 계좌

068-21-0479-041(정희연)으로

발간을 위한 후원금, 정기구독료를 송금해 주십시오.

♡ 구독료는 6개월 구독 1만원, 1년 구독 2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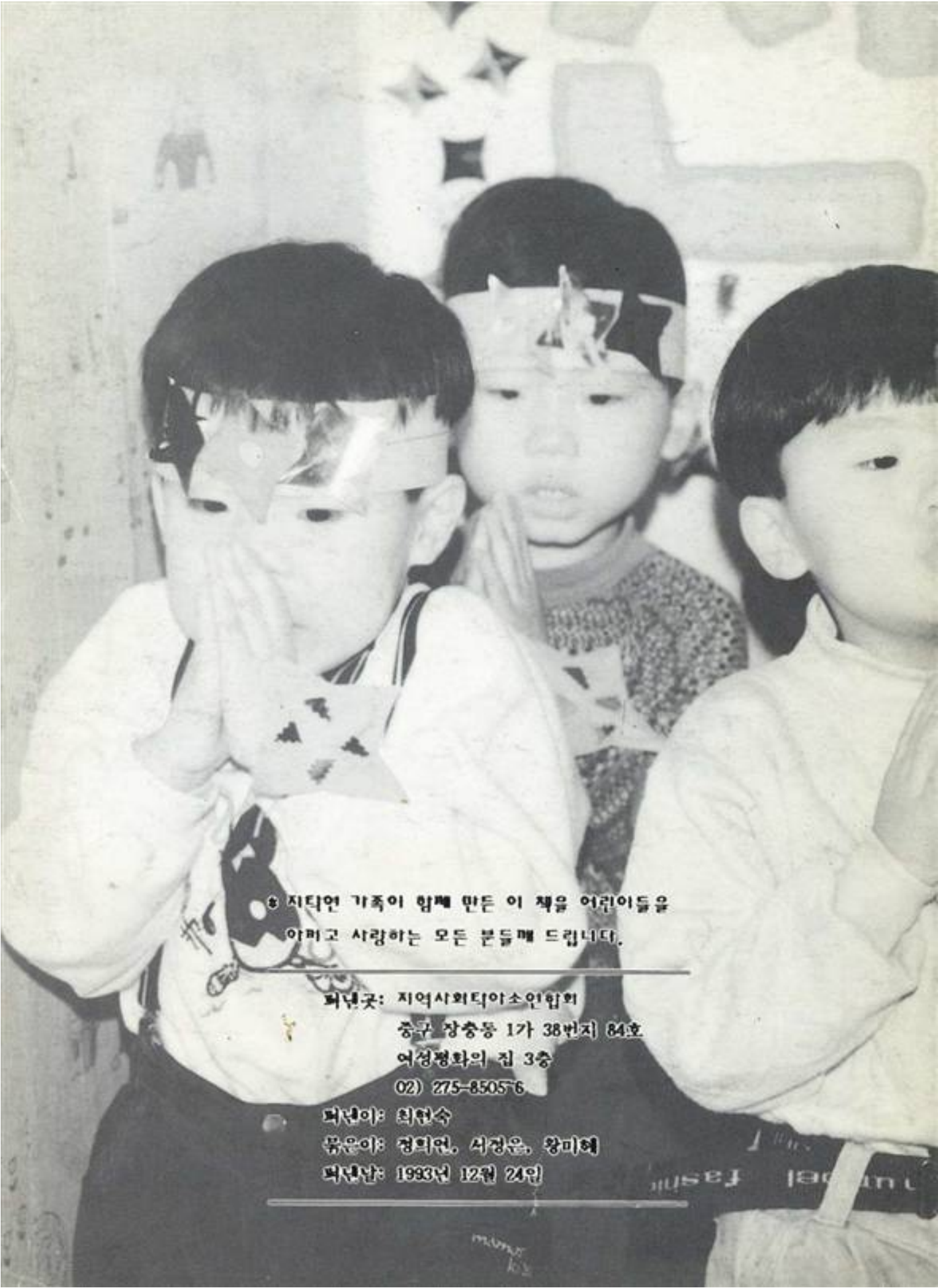
* 지탁연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힘찬 모습

으로 댈망시다!!!

함께 가는 길

12월호 <16호>



※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티아소연합회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02) 275-8505-6

펴낸이: 최현숙
물론이: 정희연, 서정은, 왕미혜
펴낸날: 1993년 12월 24일
